

백석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와 음양오행의 상징성 연구*

김 지 연**

차 례

- | | |
|---|---|
| 1. 서론 | 3) 『국수』-고담하고 소박한 국수,
민중의 감고(甘苦)를 관통하는
생명의 향연 |
| 2. 백석 시의 오방색 이미지와 음양
오행의 상상력 | 4) 『흰 바람벽이 있어』-고독한 운명
을 뚫고 고결하게 날아오르는 생
명의 열락(悅樂) |
| 3. 백석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
와 음양오행의 상징성 | 4. 결론 |
| 1) 『선우사(膳友辭)』-칭정한 친구와
교감하는 순정한 생명의 합일 | |
| 2) 『백화(白樺)』-영원한 고향 ‘백화’
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화음 | |

국문초록

백석은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을 민족어로 시화하면서, 실존의 고통과 초월의 문제를 통찰한 시인이다. 그는 삶의 아포리아에 맞서는 순수한 시심을 전통과 모더니즘을 융합한 방법론으로 형상화하여, 한국의 시사

* 본 연구는 202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서 개성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상상력의 근원과 상징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는 세속적 욕망 또는 비극적 운명에 대항하는 신성하고 순정한 '생명'을 표상한다.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와 음양오행의 상징성은 「선우사」—칭정한 친구와 교감하는 순정한 생명의 합일, 「백화」—영원한 고향 '백화'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화음, 「국수」—고답하고 소박한 국수, 민중의 감고를 관통하는 생명의 향연, 「흰 바람벽이 있어」—고독한 운명을 뚫고 고결하게 날아오르는 생명의 열락 등으로 해석되었다.

백석에게 있어서 백색 이미지는 자존과 건인불발의 정신으로 구극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원형성을 지닌다. 백석은 우리 민족에게 수장되어 있던 백색의 원형성을 끌어내 자신의 생동적인 상상력을 형상화했다. 백색의 상상력을 통해 실존의 고투를 뚫고 고결하게 날아오르는 생명의 열락을 구가했던 것이다. 과도한 발전과 팽창으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는 이 시대에, 백석의 시에 표현된 백색 이미지는 조열의 불균형을 정화시키는 서늘한 교감과 치유의 체험으로 이끈다.

주제어: 백석 시, 백색 이미지, 음양오행의 상징성, 생명의 합일, 생명의 화음, 생명의 향연, 생명의 열락

1. 서론

백석(1912~1996)은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을 민족어로 시화하면서, 실존의 고통과 초월의 문제를 통찰한 시인이다. 그는 삶의 아포리아에 맞서는 순수한 시심(詩心)을 전통과 모더니즘을 융합한 방법론으로 형상

화하여, 한국의 시사에서 개성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었던 백석은 1935년 「정주성(定州城)」으로 시작(詩作) 활동을 시작하여 민중의 삶과 문화를 이미지화하는 한편, 북한으로 귀향할 때까지 동경과 만주, 서울과 함흥 등에서 편력하는 실존의 고통과 영원 세계에의 갈망과 울림을 시화하였다.

시인에 대한 통시적 인과관계와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시인을 존재론적·사회역사적·미학적·신성사적 층위에서 통관해볼 수 있다. 존재론적 층위에서 백석은 무구(無垢)한 삶을 동경하는 고독한 실존의 내면을 절절하게 고백하면서도 상실감에 빠지지 않는 자기 절제의 균형을 담지하고 있었다. 사회역사적 층위에서 그는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을 서사적·극적 방식으로 시화하여 우리 민족의 동질감의 정서를 확장시켰다. 또한 미학적 층위에서 백석은 민족적 삶의 원형을 담고 있는 모국어로 한국의 토속적 문화를 생동감 있게 묘사해 사회문화적 예술성을 승화시켰다.

본 연구는 존재론적·사회역사적·미학적 층위에서 문학사적 의의와 개성을 지니고 있는 백석의 시정신의 한 뿌리가 음양오행론의 관점에서 탐색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백석은 그의 시에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특히 그는 백색 이미지를 즐겨 표현했는데, 그 묘사와 방법이 서구 시론의 이미지론으로 해명할 수 없는 한국문화의 집단무의식적 특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석의 시에 표현된 색채 이미지를 조명하여 그의 시에 주된 모티프로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동양의 음양오행론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방법론을 설정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방향성은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백색의 이미지가 백석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그 상징성의 깊이를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석의 시에 대한 대중들의 열렬한 교감을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석은 일제강점기에 수장(收藏)되어 있던 우리

민족의 원형무의식의 상징적 색채인 백색을 끌어내 실존의 고투(苦鬪)와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을 생동적으로 형상화했다. 이에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백석의 시에 표현된 백색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시를 새롭게 읽어, 현대시에 있어서 음양오행론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밝혀보려고 한다.

본명이 백기행(白夔行)이었던 백석은 자신이 지은 필명 ‘백석(白石)’¹⁾, 즉 ‘흰 돌’²⁾로 상징화하여 단단하고 냉정하게, 올곧고 의연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영원불멸한 시의 세계로 나아갔다. ‘흰 돌’은 고결한 지조를 함축한 불변의 생명력을 표상한다. 백석은 자신의 예술적 창의성에 우리 민족의 집단무의식을 융합하여 신성한 생명력의 표상인 백색 이미지를 심도 있게 형상화했다. 백석의 시에서 백색은 빛의 총체로서 순수하면서도 냉정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의 시를 읽으면 자연의 신성함과 음양의 조화가 풍성하게 느껴지고 자유롭고도 신성한 영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방법론은 백석 시의 백색 이미지가 지닌 원형성과 상징의 심연을 탐구할 수 있는 기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백석의 시편³⁾들을 면밀하게 읽고, 우선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오방색 작품 목록’을 정리할 것이다. 그

-
- 1) ‘흰 돌’은 음양오행에 있어서 ‘금(金)’의 상서로운 빛과 의롭고 냉철한 성격을 표상한다. ‘금’의 보편적 체계와 성향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다음 장에서 수행할 것이다.
 - 2) ‘돌’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성, 즉 영원불멸의 신성을 상징한다. 동양에서 돌은 사군자와 함께 절개를 상징하거나, 십장생의 하나로 장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신화에서의 돌은 신격화된 인물이 태어나는 영험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돌의 견고함과 불변성에 더하여 생산력, 창조력, 신비로운 응결력 등이 심화된 것이다. 현대로 오면서 돌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은 신화적 차원의 신성함이나 민속 신앙적 차원의 상징성이 흐려지고, 굳센 의지나 불변의 기개를 표상하는 것으로 변용되었다(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222-226쪽 참조).
 - 3) 본 논문에서는 백석 시인의 시 텍스트를 고희진의 『정본 백석 시집』(문학동네, 2007)의 원본으로 하였다.

리고 백석의 시에 표현된 백색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오방색으로 표상되는 ‘음양오행의 보편적 체계’를 세울 것이다. 이 체계를 바탕으로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백석의 시를 객관적 구조체로 삼아 정밀하게 읽고, 백색 이미지에 어우러져 있는 시적 자아의 내면 의식을 객관적으로 투시하면서 상상력의 울림과 상징성의 깊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2. 백석 시의 오방색 이미지와 음양오행의 상상력

백석의 시에는 오방색이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석의 첫 발표작 『정주성』부터 정주로 귀향하기 전 1948년 발표했던 『남신의 주유동박시봉방(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까지의 시 97편을 대상으로 각각의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 오방색 이미지를 세밀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97편 중에서 오방색의 이미지가 시의 주요한 제재나 정조로 표현되었거나, 시적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였다. 이 작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오방색 작품 목록’을 정리했다.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오방색 작품 목록】

백석 시	
백색	『定州城』, 『비』, 『여우난곡族』, 『흰밤』, 『古夜』, 『가즈랑집』, 『고방』, 『오리 땅아지 토끼』, 『寂境』, 『쓸쓸한길』, 『머루밤』, 『女僧』, 『彰義門外』, 『旌門村』, 『오리』, 『黃日』, 『湯藥』, 『固城街道』, 『노루—咸州詩抄』, 『古寺』, 『膳友辭』, 『바다』, 『秋夜—一景』, 『饗樂』, 『夜半』, 『白樺』,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絶望』, 『외가집』, 『내가생각하는것은』, 『大山洞』, 『南郷』, 『夜雨小懷』, 『멧새소리』, 『박각시 오는 저녁』, 『咸南道安』, 『八院』, 『수박씨』, 『호박씨』, 『北方에서』, 『국수』, 『흰 바람벽이 있어』, 『杜甫나李白같이』, 『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적색	『定州城』, 『酒幕』, 『여우난곡族』, 『統營』, 『古夜』, 『가즈랑집』, 『모닥불』, 『夏沓』, 『彰義門外』, 『旌門村』, 『統營—南行詩抄』, 『黃日』, 『固城街道』, 『北關』, 『饗樂』, 『絶望』, 『大山洞』, 『夜雨小懷』, 『杜甫나李白같이』, 『山』, 『七月백중』, 『南新義州柳洞朴時逢方』

흑색	『定州城』, 『여우난곡族』, 『古夜』, 『고방』, 『寂境』, 『靑柿』, 『머루밤』, 『오금덩이라는곶』, 『柿崎의 바다』, 『오리』, 『湯藥』, 『노루—咸州詩抄』, 『古寺』, 『饗樂』, 『絶望』, 『夜雨小懷』, 『咸南道安』, 『北新』, 『木具』, 『수박씨』, 『호박씨』, 『흰 바람벽이 있어』
청색	『定州城』, 『酒幕』, 『여우난곡族』, 『가즈랑집』, 『秋日山朝』, 『靑柿』, 『彰義門外』, 『旌門村』, 『여우난곡』, 『夕陽』, 『내가생각하는것은』, 『三湖』, 『大山洞』, 『南郷』, 『夜雨小懷』, 『柿崎의 바다』, 『박각시 오는 저녁』, 『八院』, 『山』, 『七月백중』
황색	『古夜』, 『가즈랑집』, 『고방』, 『初冬日』, 『夏沓』, 『曠原』, 『여우난곡』, 『伊豆國湊街道』, 『固城街道』, 『三千浦』, 『夜雨小懷』, 『月林장』, 『『호박꽃초롱』序詩』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오방색 중에서 백색 이미지는 43편, 적색 이미지는 22편, 흑색 이미지는 21편, 청색 이미지는 20편, 황색 이미지는 13편의 순으로 나타난다. 백석의 시에 표현된 백색 이미지의 빈도수에서도 확인되듯이 백석은 백색 이미지를 통하여 시적 자아의 고유한 내면과 구극(究極)의 정신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석의 시에 있어서 백색 이미지가 어떠한 형상화를 통해 원형적 상징성을 획득하는지,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집중할 것이다.

동양에서 음양오행은 우주 만물의 현상과 상응되는 유기체적 생명력의 척도가 되어 왔다. 서구의 이성적·논리적 사유에 비해 동양의 음양오행은 체험적 직관이 사유 방식의 토대가 되었다. 음양오행설에 기반한 ‘오방색’은 이른바 동양적 상상력의 근원으로, 세계 만물의 구성 원리인 오행의 특성을 상징한다.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으로 대표되는 다섯 가지의 색채는 동양철학에서 우주와 인간의 보편적 원리를 꿰뚫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음양오행에 있어서 ‘음양(陰陽)’은 우주와 자연의 현상을 풀이하는 근거였다. ‘음양’에서 ‘음(陰)’은 약(弱)과 정(靜), ‘양(陽)’은 강(強)과 동(動)의 개념으로 대비된다. 『노자』에 이르러 음양은 우주론적인 개념으로 심

화·확대되어 우주·자연의 다양한 의미를 함장(含藏)하는 만물의 근원으로 발전되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끌어안아 합해진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노자』의 말은 음양이 도(道)와 함께 우주와 자연의 근원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었다.⁴⁾ 음양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즉 하늘의 기(氣)와 땅의 정(精)에서 생명이 비롯되어 성장(生長)과 수장(收藏) 운동을 통해 천지 만물이 생겨났다. 우주와 자연, 즉 삼라만상은 음양의 생성과 소멸, 상반과 응합(應合)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왔다.

‘오행(五行)’은 우주·자연·인간의 존재 원리를 해석하는 개념으로, “자연계의 다섯 기운의 움직임”⁵⁾으로 해석된다. 하늘과 땅이 나뉘는 뒤에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의 순서대로 오행이 생겨나 천도(天道)의 운행이 정해지고,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사시의 변화와 일 년 주기의 세공(歲功)이 형성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 현상은 탄생, 성장, 변화, 수축, 휴식의 흐름으로 흘러간다. 음양과 오행이 조화를 이루어 천간(天干)과 지지(地支)가 만들어졌고, 오행의 각 기운과 연결된 오색(五色)·오미(五味)·오장(五臟)·오관(五官)·오성(五性) 등이 만들어졌다. 오행의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화·토·금·수의 요소가 상생·상극하며 순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상생은 목생화(木生火)·화생토(火生土)·토생금(土生金)·금생수(金生水)·수생목(水生木)으로, 상극은 수극화(水剋火)·화극금(火剋金)·금극목(金剋木)·목극토(木剋土)·토극수(土剋水)로 흘러간다.

오행을 색채로 표현하면 목(木)—청(靑), 화(火)—적(赤), 토(土)—황(黃), 금(金)—백(白), 수(水)—흑(黑)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오방색이라고 한다. 오방색을 상생과 상극으로 체계화하면 상생의 색채는 청생적(靑生赤)·적생황(赤生黃)·황생백(黃生白)·백생흑(白生黑)·흑생청(黑生靑)

4) 김기, 『음양오행설과 주자학』, 도서출판문사철, 2013, 23-28쪽 참조.

5) 위의 책, 32쪽.

으로 조화를 이루고, 상극의 색채는 청극황(靑剋黃)·황극흑(黃剋黑)·흑극적(黑剋赤)·적극백(赤剋白)·백극청(白剋靑)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오행은 상생과 상극을 통한 조화와 충돌을 통해 균형 잡힌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처럼 음양오행은 우주 만물을 규명하는 원리가 되었다. 동양 문화의 사상적 원형을 이루는 음양오행의 특성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 분석에 직접적으로 확장되는 오방(五方)·오계(五季)·오기(五氣)·오시(五時)·오화(五化)의 반응과 변화, 오색(五色)·오미(五味)·오장(五臟)·육부(六腑)·오관(五官)·오정(五情)·오의(五意)·오성(五性) 등의 원리를 아래와 같이 체계화하였다. 이 음양오행의 체계는 백석 시의 백색 이미지가 어떠한 상생과 상극을 통해 생명의 상징성을 획득하는지 분석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음양오행의 보편적 체계】 6)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方	東	南	中央	西	北
五季	春	夏	間節氣	秋	冬
五氣	風	熱	濕	燥	寒
五時	아침	한낮	오후	저녁	밤
五化	生(탄생)	長(성장)	變(변화)	收(수확)	藏(저장)
五色	靑	赤	黃	白	黑
五味	酸	苦	甘	辛	鹹
五臟	肝	心臟	脾臟	肺	腎臟
六腑	膽	小腸·三焦	胃	大腸	膀胱
五官	目	舌	口(脣)	鼻	耳
五情	怒	喜	思	憂·悲	恐

- 6) 권오호, 『우리 문화와 음양오행』, 교보문고, 1996, 176쪽 참조.
 김기, 앞의 책, 106-159쪽 참조.
 김성태, 『음양오행—생성과 소멸의 자연학』, 텍스트북스, 2010, 94쪽 참조.
 소재학, 『음양오행의 원리 이해』, 도서출판가람, 2009, 243쪽 참조.
 양계초·풍우란 외,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360쪽 참조.
 은남근, 이동철 역, 『오행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2000, 90쪽 참조.

五意	仁·慈	明·朗	重·厚	勇·斷	憂·愁
五性	仁	禮	信	義	智

음양오행의 보편적 체계에 있어서 ‘백색’은 해가 저무는 저녁, 음기가 강한 서쪽 방위의 서늘한 기운 ‘금(金)’을 상징한다. ‘금’은 ‘토’에서 생겨나서 불로써 기(氣)의 외적 발산을 억제하며 하늘의 기운으로 완성되었다. ‘금’은 땅속에서 캐내는 ‘쇠’나 ‘돌’의 물상에 대입되는데, ‘토’에서 나와 단단하게 압축되어 서늘한 빛을 발한다. ‘금’은 맑고 흰 정결로 내적 혁명과 성숙을 맞이하는, 상서로운 징조를 표상한다.

백색으로 상징되는 ‘금’은 겨울로 가는 찬바람에 맞서 올곧게 자신의 생명 열매를 지킨다. 강건한 성질로 스스로 통제하고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절개를 지키면서도 청렴결백하게 변혁을 이끈다. ‘금’은 ‘토’를 만나면 윤택하게 살아나고, ‘수’를 만나면 깨끗해지고, ‘화’를 만나면 예리해진다. 이러한 ‘금’은 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의(義)’의 성정과 덕목을 지니고 있다. ‘우(憂)·비(悲)’의 감정을 바탕에 간직하면서도 선악과 시비를 분명하게 따져 사리에 어긋날 때에는 냉철하고 과감하게 용단(勇斷)을 내려 차단한다. 불의에 저항하며 우울하고 슬픈 정서로, 깨끗하고 차갑게 자신을 지키며 천진난만하게 결백을 지키는 것이 ‘금’의 성향이다. 백색은 이러한 ‘금’의 보편적 성향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백색은 한국문화에 있어서 깨끗하고 밝은 힘으로 재앙과 악귀를 막아주는 주술(呪術)과 벽사(辟邪)의 신성성을 지니기도 했다. 또한 자존과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지고(至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색채이기도 하다.⁷⁾ 우리 민족은 흰옷을 입고 흰색을 숭상한 오랜 전통에서 이른바 ‘백의민족’이라 불렸다. ‘백의(白衣)’의 백색은 광명의 원천인 태양을 신성시하는 천인합일 사상을 표상하는 구극(究極)과 불멸의 색으로, 한국 민족 고유의 신앙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사 때 흰옷을 입고 흰떡·흰

7)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647-650쪽 참조.

밥·흰 술을 쓰는 관습은 하늘에 제사드리는 천제의식에서 유래했다.⁸⁾ 한국인에게 백색은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금’이 지니는 상징성과 맞물려 전통문화에 있어 ‘무기교의 기교’, 즉 무심무욕(無心無欲)의 중화(中和) 이미지와 상통하는 자연주의 사상으로 자리잡아 왔다.⁹⁾

이처럼 백색의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는 동양적 생동감과 상상력의 심층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색의 시에 드러난 백색 이미지의 개성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음양오행론에 착목하였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백색은 음양을 아우르는 동양의 색채의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일반화되는 서구적 색채 감각과 변별되는 ‘금’의 보편성을 함축하고 있다. ‘백색’으로 상징되는 ‘금’은 의롭고 올곧게 자신의 고결한 ‘생명’을 지켜 무심무욕의 세계, 즉 구극의 자연으로 초극하는 내적 혁명을 이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백색 이미지가 형상화된 백색의 시 43편 중에서 ‘백색’이 지니는 ‘생명’의 원형적 표상성과 아름다움을 함축하면서, 우리 민족의 집단무의식적 특성이 융합되어 시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선우사』, 『백화』, 『국수』, 『흰 바람벽이 있어』를 선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음양오행의 상상력과 원리를 바탕으로 이 시편들에 형상화되어 있는 백색 이미지의 원형적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3. 백색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와 음양오행의 상징성

- 1) 『선우사(膳友辭)』—청정한 친구와 교감하는 순정한 생명의 합일
장자는 “너는 뜻을 모아라. 그리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써 들으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9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17쪽 참조.

9) 김용권, 『한국인의 색채의식에서 보이는 이중구조』, 『조형교육』 제22집, 한국조형교육학회, 2003, 43쪽 참조.

며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써 듣도록 해라. 귀는 소리만 듣는 데 그치고 마음은 사물과 부합함에 그친다. ‘기’란 것은 텅 빔으로써 사물에 응하는 것이다. 도는 오직 텅 비울 때 이루어지니, 비우는 것이 바로 ‘심재’이다.”¹⁰⁾라고 하였다. 장자가 말한 이 ‘기(氣)’는 지각 작용의 근원으로, 영명성(靈明性)을 지닌 최상의 인식 상태를 가리킨다.

『선우사』에는 장자가 심재설(心齋說)에서 이야기한 ‘기’의 지각 작용, 즉 마음을 비우고 사물과 응하는 시적 자아의 지각의 영묘(靈妙)함이 드러나 있다.

낮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나와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무슨이야기라도 다할것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헤정한 모래톱에서 하구긴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탓이다
바람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소리를들으며 단이슬먹고 나이들은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배우며 다람쥐동무하고 자라난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없어 히여졌다
착하디 착해서 세콧은 가시하나 손아귀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없다
그리고 누구하나 부럽지도않다

10) 『人間世』, 『莊子』, 김기, 앞의 책, 166-167쪽 재인용.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같은건 밖어나도 좋을것같다

— 「선우사(膳友辭)」 전문

「선우사」에서 시적 자아 ‘나’의 친구는 ‘흰밥¹¹⁾’과 ‘가재미¹²⁾’이다. 마음을 비우고 동식물과 친구가 되어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시적 자아의 상상력이 참신하다. 좋은 친구 ‘선우(善友)’라는 한자어를 반찬 친구 ‘선우(膳友)’로 치환한 발상이 새롭고 재미있다. ‘선(膳)’은 반찬의 뜻을 지니는데, 굳이 ‘선’ 자를 쓴 것은 한자어 ‘선우(善友)’와 동음의 뜻을 연상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선우(膳友)’라는 조어는 시적 자아가 지닌 ‘심재(心齋)’의 상상력을 재기발랄하게 보여주는 시적 전략이다.

첫 연에서 시적 자아는 쓸쓸한 저녁, 낡은 ‘나조반’에 놓인 ‘흰밥’과 ‘가재미’에게 말을 건넨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가난하지만, 서로 미덥고 정답고 착하고 욕심이 없는 좋은 친구이다. 이 시에서 ‘흰밥’과 ‘가재미’는 ‘나’의 생명을 연명해 주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11) 우리 민족은 ‘밥’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 생각하고 수천 년 동안 주식으로 삼아 왔다. 인간의 몸은 오행의 기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행의 기운을 갖춘 음식이 몸에도 훌륭한 음식이다. 우리 민족의 주식인 밥은 ‘금’의 기운을 담고 있는 흰색이지만, 밥으로 지었을 때에는 오행이 어우러진 음식이 된다. 흙에서 생산되는 쌀은 ‘토’의 집결체로 ‘금’의 기운을 띠는 흰색이고, 밥을 짓는 솥은 보통 쇠로 만들어져 있어 ‘금’의 기운이다. 솥에 쌀을 안치고 물을 붓고 나무에 불을 피워 밥을 하므로, 밥은 ‘수·목·화’가 상생의 기운으로 결합되어 있다(권오호, 앞의 책, 187-188쪽 참조).

12) 백석은 실제 당시 쓸쓸했던 삶에 한없이 착하고 정다웠던 친구 ‘흰밥’과 ‘가재미’에 대한 사회의 글을 쓰기도 하였다.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광어, 문어, 고등어, 평메, 햇대……생선이 많지만 모두 한두 끼에 나를 물리게 하고 만다.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백석, 「가재미·나귀」, 『조선일보』, 1936.9.2, 이동순 편저, 『백석시전집』, 창작사, 1987, 157쪽 재인용)

나누는 삶의 동지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지만, '나'의 친구들은 텅 빈 마음으로 서로 교감하며 스스로 맑고 밝게 싱싱한 저녁상을 맞고 있다.

3연에서 시적 자아는 '나'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 순수하고 소박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들'이 살아온 내력을 시화하고 있다.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긴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 "바람좋은 한별관에서 물닭이소리를들으며 단이슬먹고 나이들은 탓",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배우며 다람쥐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라는 표현이 역설적 인식으로 동질감의 정서를 느끼게 한다. 척박하고 신산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은 서로를 긍정하고 의지하며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하고 건강한 생명력으로 살아왔다.

'우리들'은 궁벽한 산골에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한별관'에서 물닭이 소리를 듣고 솔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와 동무하며 향기로운 이슬을 먹고 자랐다. 또한 맑은 바다의 모래톱에서 물밑이 들여다보이는 깨끗한 모래알을 세며 살아왔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여졌다'. 착하디착해서 억척스러운 기세도 필요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파리하게 까지 된 것은 산골에서 생명의 바람을 맞으며 잔뼈가 굵고 나이 든 '탓'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정화된 자연의 순수함을 먹고 자라나 견고한 생명력으로 서로를 빛나게 한다. 이렇게 '나'의 친구들은 맑고 밝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서로에게 청정한 생명의 힘을 준다.

4연의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없어 희여졌다"라는 표현은 백색으로 뭉친 '선우'의 적확한 기질을 묘사한다.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같은건 밖에도 좋을것같다"라는 마지막 구절은 이미 세상 밖에 나 있는 쓸쓸한 시적 자아의 내면을 극대화한다. '선우'와 함께라면 세상 밖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시적 자아의 절절한 독백이 쓸쓸함을 더욱 사무치게 한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쓸쓸한 '선우'를 발견하고 교감하면서, 시적 자아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치유되는 역설적 심연을 맞는다.

흰색은 ‘희다’ 즉 태양과 연(年)을 의미하는 중세표기 ‘희다(白)’에서 유래했다. ‘백(白)’ 자는 해를 의미하는 ‘인(日)’ 자 위에 빛을 가리키는 한 획을 그어 이루어졌다.¹³⁾ 고대 사회로부터 해 또는 햇빛은 흰색으로 인식되어, 신성과 결백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다. 특히 백색은 청렴결백하여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깨끗하여 물계(物界)와 속탐(俗貪)이 없는 의기(義氣)로 표현되었다.¹⁴⁾ 『선우사』에서 시적 자아는 ‘흰밥’, ‘가재미’와 함께 서로의 하얀 속살을 보며 세속적 갈등과 갈망을 넘어 순일무잡(純一無雜)하다. 정갈하고 소박한 ‘선우’인 ‘우리들’은 결백한 상생의 어우러짐으로 충만하게 빛난다. 이 시에 돋보이는 백색 상징은 선하고 의로운 시적 자아의 품성을 느끼게 한다. 오행의 관점에서 백색 ‘금’은 우울하고 슬픈 정서를 지니지만, 용기와 단호함으로 자신의 ‘의(義)’를 냉정하게 지키기 때문이다.

『선우사』에서 시적 자아는 모든 자연 또는 만물이 원융(圓融)한 세계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심재’의 상상력을 보여준다. 시적 자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느끼는 온갖 고난을 백색의 ‘선우’와 함께 견디며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뚫어버린다. 마음을 비운 시적 자아는 결백한 친구들과 합일 상생하며 청정한 생명의 힘을 나눈다. 천지자연에 홀로 가난하고 쓸쓸했던 시적 자아는 이 백색의 ‘선우’와 함께 청정하고 영명하게 나아간다. ‘선우’와 함께,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무궁한 교감과 합일이 신비롭고 아름답다.

『선우사』에서 시적 자아는 단순한 ‘음식 친구’ 이야기를 넘어 ‘마음 비움’을 통해 만물과 교감하며 청정한 생명을 꿈꾸는 맑은 정신을 노래하고 있다. 『선우사』에 표현된 백색은 백석 자신을 표상하는 이미지이면서 시적 영감을 형상화하는 동인이다. 백색이 지닌 음양오행의 원형이 백석의 시를 통해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새롭게 회통하고 있다. 『선우사』에

13)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647쪽 참조.

14) 최남선, 『백색』, 『육당최남선전집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현암사, 1973, 445쪽 참조.

서 보이는 ‘심재’의 상상력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서 순수하게 울리고 있는 심연의 소리를 포착한 것이다. 착한 마음으로 청정한 친구와 교감하며 순정한 생명의 합일을 이루고 있는 백석의 시심(詩心)이 담연(淡然)하다.

2) 「백화(白樺)」—영원한 고향 ‘백화’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화음

자작나무라 불리는 ‘백화’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 나무껍질이 백색으로, 줄기의 껍질이 종이처럼 하얗게 벗겨지는 특징이 있다. 자작나무의 백색 수피(樹皮)를 가리켜 백화라고 하였다. 햇빛을 좋아하는 극양수(極陽樹) 백화는 매우 단단하고 치밀한 기름기로 추위에 강하고 나무의 질이 좋고 오랫동안 썩지 않으며 벌레가 먹지 않아서 건축재·세공재·조각재 등에 좋다. 백화를 정자·산막 같은 곳에 심어서 아취(雅趣)를 즐기기도 하고, 잘 썩지 않는 백화로 함경도·평안도의 산골에서는 영계(靈几)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의 국보인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도 백화로 만들어졌고, 천마총에서 출토된 말 안장의 재료도 백화로 만들어졌다. 천년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는 백화의 자태가 신묘하다. 곡우 때에는 백화 줄기에 상처를 내어 수액을 먹기도 했다. 한방에서는 수피를 백화피(白樺皮)라 하여 약재로 사용했다.¹⁵⁾

자작나무는 기름기가 많아 이 나무를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나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자 ‘화(樺)’도 나무의 이 성분을 본뜬 이름이다. 흔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화축을 밝힌다’라고 하는데, 이때 ‘화축’은 바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초를 가리킨다. 특히 한국의 영산으로 불렸던 백두산에는 자작나무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흰 자작나무가 고고하게 살아오고 있다.¹⁶⁾ 한국인은 경천(敬天)의 종교적 가치를 지닌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9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6-37쪽 참조.

16) 강관권, 『자작나무와 사면족, 켈트족』, 『세상을 바꾼 나무』, 다른출판, 2011 참조.

‘붉’문화를 형성하였다. ‘붉’이란 광명, 즉 밝음을 뜻하는 태양, 즉 하늘을 의미한다. 백두산을 비롯해 백운산, 백마산, 백암산, 소백산 등 ‘백(白)’이 들어가는 ‘산’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 즉 흰색이 지닌 오행의 상징적 의미가 융화되어 있다.¹⁷⁾

백석의 고향 평안도 정주는 자작나무 숲이 넘치던 곳이었다.¹⁸⁾ 백석은 『백화』에서 북방의 우리 민족에게 신령한 나무로 자리잡아 온 백화의 생명력을 시화한다. ‘백화’에는 흰 자작나무가 산골 마을을 생명으로 빛나게 한다는 심연이 담겨 있다.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캉캉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甘露같이 단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넘어는 平安道땅도 뵈인다는 이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백화(白樺)』 전문

『백화』에는 온 마을과 온 산에 백화가 어우러져 있는 풍경이 표현되어 있다. 추운 산골 마을에 하얀 수피로 빛나고 있는 백화의 풍치(風致)가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시적 자아가 백화를 감상하는, 다시 말하면 단조로운 서경시로 읽을 수 없는 오묘한 경지를 함축하고 있다. 백화는 마을의 부정과 어둠을 떨치고 생명의 화음을 탄탄하게 주재하는 보재(寶財)이다.

이 시는 1행부터 5행까지 시의 모든 행이 ‘자작나무다’라는 명쾌한 울림으로 끝난다.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여우가 우는 산도”,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단샘이 솟는 박우물도”, “平安道땅도 뵈인다

17)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육당최남선전집 3』, 현암사, 1973, 216쪽 참조.

18) 박용구, 『백석과 자작나무』, 『숲과 문화』 제31호, 숲과문화연구회, 2022, 44쪽 참조.

는 이산골” 모두는 자작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보조사 ‘도’와 ‘자작나무’라는 시어가 반복·병렬되면서 온통 자작나무가 떠받쳐주고 있는 산골의 이미지와 시상의 전개가 단순함의 힘을 준다. 자작나무에 서려 있는 견고한 생명의 화음이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메아리친다.

시적 자아의 시점은 ‘산골집’, ‘산골집’을 둘러싸고 있는 산, 메밀국수를 삶는 부엌, ‘단샘’이 솟으며 삶의 터를 지키고 있는 ‘박우물’, 멀리 평안도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마을 산의 정상으로 이동한다. 자작나무를 관찰하는 시적 자아의 객관적 시선이 즉물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시적 자아는 ‘산골집’의 대들보, 기둥, 문살을 이루고 있는 자작나무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마을을 에두르고 있는 자작나무 숲을 주시한다. 이어서 ‘모밀국수’를 삶기 위해 화목(火木)이 된 자작나무에 주목했다가 감로(甘露)를 담은 ‘박우물’ 틀로 만들어진 자작나무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윽고 시적 자아는 ‘산골’을 온통 싸안고 있는 자작나무의 다채로운 향연을 펼쳐 보이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시적 자아는 ‘산골집’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는 자작나무를 인식하며, 그 품 안에서 평안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산골 마을을 환기한다. 이 시에서 자작나무는 “그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이 되는 화목의 변역(變易) 과정을 거친다. 또한 자작나무는 생명수 ‘단샘’을 길어 올리는 ‘박우물’ 틀이 된다. 목생화(木生火)와 수생목(水生木)의 상생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시적 자아는 “산넘어는 平安道땅도 뵈인다는 이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라며, ‘산골집’을 평화롭게 둘러싸고 있는 자작나무의 한없이 넓고 깊은 품과 교감한다. 토생금(土生金)의 원리에 의해 자작나무는 평안도 산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정하게 서 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을 간다는 자작나무의 생명력이 온 산과 마을에 왕성하게 어울려 있다. 이 자작나무와 함께한다면 영원히 꿈을 잃지 않고 싱그러운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백화’는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력의 원천인 ‘목’

과 조락의 가을에 자신의 생명 열매를 지키는 ‘금’이 결합된 나무이다. ‘목’은 어질고 온순하며 자비로운 ‘인(仁)’의 성정을 품고 있다. 모든 생명의 시작에는 ‘목’의 기운이 움튼다. 그래서 ‘목’은 새싹이 굳은 땅을 뚫고 새 생명으로 뻗어 오르는 봄의 기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금’으로 상징되는 하얀 수피가 적막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단단하게 무장하고 생명을 지키고 있다. 영락과 파괴의 고통 속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단단해져 죽음을 생명으로 반전시키는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백화는 단순히 새 생명을 틔우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다. 백화는 우주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매운 가을에 치열하게 맞서 고투하며 천의무봉(天衣無縫)의 흰 수피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자작나무의 흰 수피가 금극목(金剋木)의 충돌과 고통을 통해 청정한 생명으로 빛나는 것이다.

『백화』에서 시적 자아는 영원한 고향 자작나무 숲에서 우주와 교감하며 충일감을 느낀다. 자연과 어우러져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원천이 되고 싶은 시적 자아의 상상력이 무구하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서 있는 자작나무는 생명의 연금술사이다. 자작나무를 향한 결백한 시선이 영원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갈망과 동경을 느끼게 한다. 자작나무가 회고 단단하게, 마을의 재앙과 불행을 물리치고 하늘로 곧게 뻗어 꽃꽂이처럼 서 있다. 온 마을에 자작나무의 생명성이 시공을 초월해 빛나고 있다. 흰 자작나무가 마을의 어둠과 부정을 없애주는 벽사의 힘이 느껴진다.

이처럼 『백화』에는 백화가 금극목(金剋木)·백극청(白剋靑)·목극토(木剋土)의 상극을 견디면서 산골 마을을 영험하게 지키고 있다. 또한 백화가 ‘단샘’을 길어내고 빨갛게 되는 수생목(水生木)·목생화(木生火)의 상생 작용이 어우러져 있다. 백화에서 상극과 상생의 충돌과 조화가 일어나고 마침내 생명의 화음이 울려 퍼진다. 백화가 삶의 고락(苦樂)을 따뜻하게 포용해주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약동하고 있다. 영원한 고향 백

화에서 생명의 화음을 느끼는 백석의 상상력이 심원(深遠)하다.

3) 『국수』—고담하고 소박한 국수, 민중의 감고(甘苦)를 관통하는 생명의 향연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흰색은 민속신앙의 의례에서 길서(吉瑞)의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 돌에 흰 백설기, 생일에 흰 쌀밥, 혼인날에 흰 국수 등을 나누는 풍습은 경사스러운 날에 부정을 없애고 태양의 밝음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이 담겨 있다. 특히 국수는 가족과 이웃이 행복과 안녕을 담아 함께 먹었던 축하의 음식이었다. 실처럼 가늘고 긴 모양을 한 기묘한 국수는 ‘생명’이 길어지길 빌었던 장수의 상징으로, 무병장수를 염원하거나 깊은 종교심을 신에게 표현할 때 바치는 귀한 음식이었다. 실과 같은 독창적 모양을 지닌 국수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등의 신성하고 경사스러운 순간에 모든 생명과 인연이 길게 이어지길 바라는 행운과 화합을 소망하는 길한 음식이었다. 또한 국수는 쌀이나 햇곡식을 수확하기 전인 유두절, 차례상에 조상 혼백을 극진히 모실 때 올리는 정성의 음식이기도 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국수는 백색이 지니는 벽사와 신성함 속에서 가족과 이웃을 흥성흥성하게 연결시켜 주는 공동체 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다.¹⁹⁾

눈이 많이 와서
산엿새가 벌로 날여 맥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하면
마을에는 그무슨 반가운것이 오는가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여덟도록 평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 흥성 들뜨게 하며

19)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2, 41-46쪽 참조.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2004, 96-102쪽 참조.

이것은 오는것이다
이것은 어니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넙 은댕이 예데가리밭에서
하로밤 뽀오한 힌김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명에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넷날 한가하고 즐겁든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비속을 타는듯한 너름 벗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
람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으것한 마음
을 지나서 텃텃한 꿈을 지나서
집웅에 마당에 우물든딩에 함박눈이 폭폭 싸히는 여니 하로밤
아배앞에 그어린 아들앞에 아배앞에는 왕사밭에 아들앞에는 새끼사
밭에 그득히 살이워 오는것이다
이것은 그 꿈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넷적 큰마니가
또 그 집등색이에 서서 자체기를 하면 산넙엿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넷적 큰 아버지가 오는것같이 오는것이다

아, 이 반가운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쟁 하니 녀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땡추가루를 좋아하
고 싱싱한 산평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내음새 탄수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육한
더북한 살방 찢찢 끓는 아르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마을의 으것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것은 무엇
인가
이 그지없이 枯淡하고 素朴한것은 무엇인가

— 「국수」 전문

「국수」에서 백석은 평안도 고향 마을의 국수 문화와 우리 민족이 지
녔던 동질감의 정서를 그려낸다. 특히 이 시에서 시적 자이는 국수를 우
리 민중의 삶과 함께했던 정다운 음식으로 조명하고 있다. 척박한 산골
마을에서 이웃들이 국수를 만들어 먹을 때에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친

밀한 행복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이 국수를 함께 만들어 먹으며 고락(苦樂)의 향연을 펼쳤던 것이다.

『국수』에는 우리 민족에게 신비로운 역사성을 담고 있는 국수의 공동체적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이것은’ ‘오는 것이다’가 반복된다. 또한 ‘이’ ‘무엇인가’가 반복되면서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국수의 맛이 감각화되면서 “그지없이 枯淡하고 素朴한” 멋을 함축한 국수가 친근하게 의인화되어 있다.

이 시에서 국수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다. 국수는 우리 민중의 혼이 깃들여 있는 전통적 음식 문화의 풍속을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이다. 눈이 많이 내렸던 평안도의 산골 마을을 회상하고 있는 시적 자아는 어린 시절 반갑고 즐겁게 먹었던 국수에 얽힌 마을의 풍습과 토속적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낸다. ‘김치가재미’, ‘예데가리밭’, ‘우물든당’, ‘큰마니’, ‘댕추가루’, ‘아르굴’ 등의 평안도 사투리도 민중의 원형으로서의 삶과 동질감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수는 우리 민중에게 “실같은 봄비속을 타는듯한 녀름 벗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속을 지나서”, 봄·여름·가을의 순순한 순환으로 여물어 가는 곡식처럼 아름답게 왔다. 국수는 봄비의 생명력을 함뻍 담고, 이글거리는 여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들쿠레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왔다. 생명의 바람을 함축한 봄비처럼, 땀별을 생명을 키우는 소중한 축복으로 건디는 여름처럼, 서늘한 바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을처럼, 국수는 그렇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왔던 것이다.

폭설이 내린 혹한의 가난함 속에서도 국수는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하게 구수한 즐거움을 주고, 소박하지만 들뜨게 하는 먹거리가 되었다. 국수는 각각의 계절에 우리 민중들에게 마냥 좋고 즐겁고 반가운 음식이었다. 토박한 땅을 일궈야 했지만 국수를 먹을 때는 늘 기쁜 날이 되었다. 이처럼 국수는 단순히 허기를

때우는 허찮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에게 가난한 현실을 함께하는 공동체 음식이었다.

또한 국수는 “하로밤 뽀오한 힌김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명에같은 분틀을 타고” 왔다. 귀한 별식(別食)이었던 국수는 밥보다 훨씬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다. 밀이나 메밀을 갈아서 반죽하고 숙성시켜 단단하게 밀거나 치대서 한 올 한 올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쌀과 밀이 귀했던 평안도 산골에서는 메밀국수가 가난과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 되었는데, 딱딱한 메밀을 단단하게 치대기 위해 ‘분틀’이란 국수틀이 창의적으로 고안되었다.²⁰⁾ 이처럼 국수에는 민중적 음식으로서의 국수와 국수에 얽힌 우리 민족의 창의적 디자인인 ‘산명에 같은 분틀’이 그려져 있다.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으젓한 마음을 지나서 텅텅한 꿈을 지나서 집웅에 마당에 우물든덩에 함박눈이 폭 폭 싸히는 여늬 하로밤 아배앞에 그어린 아들앞에 아배앞에는 왕사발에 아들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살이워 오는 것이다”라는 구절은 파란곡절의 역사와 함께해 온 국수에 스며들어 있는 의젓한 마음과 텅텅한 꿈과 끈질긴 생명을 관조하게 한다. 또한 국수는 ‘꿈의 잔등’에 업혀져 길러졌던 ‘큰마니’처럼 오거나, ‘자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릴 정도로 우렁찼던 ‘큰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왔다. 국수는 이처럼 신화적 시간을 함축한 신묘한 역사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함께 긴 세월을 걸어온 국수는 신성한 생명력을 동반한 ‘반가운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수는 우리 민중과 감고(甘苦)를 함께했다. 갈대를 엮어 만든 ‘살방’에서 사는 가난한 현실이었지만 온갖 냄새가 배어 있는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서 다정하게 국수를 먹었다. 추운 겨울밤에 차가운 국수로 배를 채우고 따뜻한 ‘아르굴’에 누워 겨울밤을 건넜다. 삶의 온갖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71쪽 참조.

냄새로 얼룩졌던 사랑방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동티미국’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서 굴곡진 현실과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정답게 감내했다.

추운 겨울 동치미국수는 얼얼한 고춧가루, 고기와도 잘 어울리는 음식이었다.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국수는 오미(五味)의 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렸다.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국수를 말고 고명으로 ‘댕추가루’나 ‘산평의 고기’를 올리면 소박한 만찬이 된다. 이렇게 국수에는 청·적·황·흑색의 온갖 고명이 올려졌다.²¹⁾ 고명이 어우러진 국수는 음양오행이 어우러진 조화의 음식이었다.

한편, 「국수」에는 겨울 무로 동치미를 담가 익힌 후 ‘동티미국’에 국수를 말아 먹었던 한국 특유의 풍속이 담겨 있다. 추운 겨울, 얼음이 쪼한 ‘동티미국’에 이가 시리도록 국수를 말아먹으며 추위를 견뎠던 이한치한(以寒治寒)의 풍습인데, ‘국수’에 수축하고 단련해서 열매를 맺는 ‘금’의 성질인 ‘백색’ 이미지가 짙게 표현되어 있다.

시적 자아는 국수를 “그지없이 枯淡하고 素朴한것”으로 도파(道破)했다. 백의민족으로 상징화되는 한국 민족의 집단무의식적 특성이 단적으로 환기된다. 국수는 그 모양과 색깔이 수수하고 담백한 매력을 지니는데, 이러한 맛과 멋이 우리 민중이 지닌 ‘고담하고 소박’한 집단무의식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수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민중의 감고(甘苦)와 ‘텃텃함’을 담은 공동체 음식으로, ‘고담하고 소박’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삶과 생명력을 관통하고 있다. 국수가 서럽고 고단한 우리 민중의 삶과 함께하며 생명의 향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수를 통해 한국 민족의 ‘고담하고 소박’한 생명력을 간파한 백석의 문화적 창의성이 쾌연(快然)하다.

21) 청·적·황·백·흑의 색채는 각각 오행인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담고 있는 음식이다. 예를 들면 청색은 그린푸드, 적색은 붉은색의 고기나 과일, 황색은 노란색을 담고 있는 과일과 곡류, 백색은 흰색을 띠는 곡류나 뿌리, 흑색은 검은색을 띠는 곡식, 열매, 해산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힌 바람벽이 있어』—고독한 운명을 뚫고 고결하게 날아오르는
생명의 열락(悅樂)

『힌 바람벽이 있어』에서 시적 자아는 ‘힌 바람벽’과 대면해 하늘의 음성을 보고 듣는 시적 체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 ‘힌 바람벽’은 순수한 하늘빛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생명의 길색(吉色)이다. ‘힌 바람벽’에는 천진한 하늘에 청빈하게 귀일하려는 천인합일의 경지, 즉 ‘금(金)’의 천리(天理)가 표상되어 있다.

오늘저녁 이 좁다란방의 힌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것만이 오고 간다
이 힌 바람벽에
히미한 十五燭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낮은 무명샷뜨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감주나 한잔 먹고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힌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등등하니 추운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앓어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서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사이엔가
이 힌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것으로 호젓한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듯이 나를 울려하는듯이
눈질을하며 주먹질을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세상을 내일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살도록 만드신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쥬』과 陶淵明과 『라이넬·마리아·릴케』
가 그러하듯이

— 『흰 바람벽이 있어』 전문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시적 자아는 쓸쓸한 이방인의 고적감과 상실감을 안고 ‘흰 바람벽’과 마주하고 있다. ‘바람벽’은 벽의 옛말이자 황해도 방언인 ‘브름’과 ‘벽’이 중첩되어 사용된 표현이다. 이 시에서 ‘바람벽’은 간이 벽으로 방의 칸을 나뉘 쪼갬 궁핍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시적 자아는 누추한 방에서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을 떠올린다. ‘흰 바람벽’은 지독하게 외로운 시적 자아가 날것 그대로의 본능과 결핍, 편력과 방황, 사랑과 욕망의 상념들을 쏟아내게 하는 마당이 된다.

한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하늘의 음성이 ‘흰 바람벽’에 새겨지는 상상력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하늘은 인간의 운명과 회복을 주재²²⁾하는 우주의 초월적 존재로 해석된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융합된 시심(詩心)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에는 천인합일의 정신, 즉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곧 하늘에 닿

2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623-625쪽 참조.

는다는 통찰의 과정이 펼쳐진다.

군색스러운 고독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시적 자아는 ‘흰 바람벽’을 마주하여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을 공감하며 인식의 확장을 체험한다. 그리고 몽상이 깊은 밤에 이르러 시적 자아는 ‘흰 바람벽’에 새겨진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글을 보며 운명을 통감한다. 고독한 자신의 운명을 투명하게 자각하는 심연이 호젓하지만, 자신의 가슴이 언제나 사랑과 슬픔으로 뜨거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흰 바람벽’은 시적 자아에게 고독을 영감으로 변용시켜 주는 원천이 된다. 쓸쓸하고 외로웠던 시적 자아의 내면이 사랑과 생명의 바람으로 회오리치는 변혁을 맞이하는 것이다.

고독한 운명으로 지리멸렬해진 시적 자아는 ‘흰 바람벽’에서 위로와 울력이 교차하는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마침내 시적 자아는 ‘흰 바람벽’의 공간에 “하늘이 이세상을 내일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살도록 만드신것이다”라는 하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는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시적 자아가 고독한 운명을 뚫고 고결하고 신성한 하늘로 날아오르는 역설의 심층을 만나게 된다. 고독이 생명의 열매를 찾게 하고,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통찰의 순간이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백색은 ‘우(憂)·비(悲)’의 정서를 대변한다. ‘폐’를 관장하는 ‘금’, 즉 백색은 생명의 기운이 쇠약해지는 을씨년스러운 늦가을에 ‘우·비’의 감정으로 자신을 분출한다.²³⁾ ‘우·비’의 정서는 봄·

23) 주희는 『맹자』의 사단(四端)을 오행에 상응시켰다. 그는 천지 기질의 차별에 따라 심성이 발현된다고 보았다. 그는 ‘의(義)’의 단(端)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이 ‘금(金)’과 맞물린다는 심성론을 펼쳤고, 이는 음양오행설의 바탕이 되었다. 주희의 심성론은 기(氣)의 본체인 천지지성(天地之性)을 잘 담아 기질 변화를 수양 목표로 삼는 주자학의 바탕이 되었다(김기, 앞의 책, 174-182쪽 참조).

여름인 ‘목’·‘화’가 가을 ‘금’의 기운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싸늘함, 공포, 두려움, 슬픔, 우울 등의 감정을 함축한다. 가을을 맞아 백색은 천지 만물의 불순한 독소를 배출·정화하며, 오로지 순수하고 청정한 기운으로 생명의 상징인 ‘열매’를 냉정하고 고독하게 지킨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는 ‘우·비’의 정서로 시적 자아가 자신의 생명을 고결하게 정화하는 변혁의 과정이 그려져 있다.

우울하고 슬픈 마음에 지쳐 있던 시적 자아는 ‘흰 바람벽’의 마당에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게 되는 빛을 만난다. 그리고 ‘흰 바람벽’의 시공간에서, ‘나’는 ‘나’의 가슴이 사랑과 슬픔으로 넘치고 있었음을 자각한다. ‘나’의 영혼이 맑고 밝고 넓고 깊은 하늘을 만나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처럼 시적 자아는 ‘흰 바람벽’을 통해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듣는 내적 혁명을 체험한다. 편력의 길에서 지치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시적 자아가 절망의 나락에서 새 생명으로 충만한 열락(悅樂)의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백석은 백색의 상상력을 통해 영원하고 순수한 빛, 즉 하늘과 만난다. 우리 인간 존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대극적 삶 속에서 ‘사랑’과 ‘슬픔’이라는 극단의 시계추를 경험한다. 이 ‘사랑’과 ‘슬픔’은 인간 존재라면 누구나 느끼고 사색하는 보편적 감정이다. ‘흰 바람벽’에는 현실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시대와의 갈등을 불화로 치닫지도 않으며 ‘넘치는 사랑과 슬픔’으로 걸어가야겠다는 목소리가 박힌다. 시적 자아가 영원의 하늘로 상징되는 시의 신성한 세계를 만나고, 비극을 넘어서 초월과 불멸을 향한 구극의 세계로 생명의 열락이 생동한다. 고독한 운명을 뚫고 고결하고 찬연(燦然)하게 날아오른 백석의 역설적 시정신이 창연(敞然)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상상력의 근원과 원형적 상징성을 탐색해 보았다. 음양오행설은 한국 민족의 집단무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석의 시 97편을 정밀하게 읽어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오방색 작품 목록’을 정리하고, 백석 시 해석의 토대가 되는 ‘음양오행의 보편적 체계’를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음양오행의 방법론으로 백석의 시에 표현된 백색 이미지의 상징성을 새롭게 해석해 그 독자적 특성과 현재적 의미를 밝혀보았다.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와 음양오행의 상징성은 「선우사」—청정한 친구와 교감하는 순정한 생명의 합일, 「백화」—영원한 고향 ‘백화’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화음, 「국수」—고답하고 소박한 국수, 민중의 감고를 관통하는 생명의 향연, 「흰 바람벽이 있어」—고독한 운명을 뚫고 고결하게 날아오르는 생명의 열락 등으로 해석되었다.

백석에게 있어서 백색 이미지는 창조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동기이자 영감의 근원이었다. 백석의 시에서 백색 이미지는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금’의 보편적 성질을 풍요롭게 담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집단무의식적 특성을 지니는 ‘백의’의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 백색은 자존과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구극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원형성을 지닌다. 백석은 우리 민족에게 수장되어 있던 백색의 원형성을 끌어내 자신의 생동적인 상상력을 형상화했다. 백색의 상상력을 통해 맑고 밝게 자신을 조율하고 정화하는 치유의 체험을 표백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한여름 속에 치달아 있다. 과도한 발전과 팽창으로 사회가 번화(繁華)해졌지만, 이 사회와 구성원들은 조열(燥熱)의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석의 시에 표현된 친숙하면서도 독특한 백색 이미지는 독자와

의 묘용(妙用)을 통해 서늘한 교감을 이루게 한다. 백석의 시를 마주하면서 독자의 내면에는 우주의 대혁명(大革命)이 일어나는 가을, 즉 ‘금’의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고결하고 강건하게 지키면서 과열된 삶을 맑게 정화시키는 치유의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백석의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는 세속적 욕망 또는 비극적 운명에 대항하는 신성하고 순정한 ‘생명’을 표상한다. 음양오행을 통해 백석 시에 형상화된 백색 이미지를 조명하면서 필자는 실존의 한계와 고통을 초극하는 강건하고 고결한 백색의 표상성을 통찰했다. 인간 존재의 삶은 시고, 뜨겁고, 맵고, 짜고, 달콤하다. 백석은 백색 이미지를 통해 청·적·황·흑색을 감싸 안으면서, ‘우(憂)·비(悲)’의 정서로 온갖 불순한 것들을 정화하며 고독의 극한에서 찬연하게 날아올랐다. 삶이 ‘넘치는 사랑과 슬픔’의 변주임을 자각하고, 그 신성한 하늘의 세계와 합일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락을 구가한 것이다.

음양오행론으로 백석 시의 백색 이미지의 상징성을 탐구하면서 필자는 이 연구의 방법론을 문화예술을 관통(貫通)·통관(洞觀)하는 융합적 음양오행론으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향후 문학예술 분석을 위한 음양오행 방법론에 대한 탐구를 기약하며 논의를 끝맺는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고형진,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이동순 편저, 『백석시전집』, 창작사, 1987.
정효구 편저, 『백석』, 문학세계사, 1996.

<논문 및 단행본>

- 강판권, 『세상을 바꾼 나무』, 다룬출판, 2011.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2.
구중희, 『한국 명리학의 역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2010.
권오호, 『우리 문화와 음양오행』, 교보문고, 1996.
김기, 『음양오행설과 주자학』, 도서출판문사철, 2013.
김성태, 『음양오행—생성과 소멸의 자연학』, 텍스트북스, 2010.
김용권, 『한국인의 색채의식에서 보이는 이중구조』, 『조형교육』 제22집, 한국조형교육학회, 2003, 35-56쪽.
김지연, 『이성선 시에 형상화된 음양오행의 상상력과 치유성 연구』, 『비평문학』 제75호, 한국비평문학회, 2020, 101-131쪽.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궁리, 2008.
박용구, 『백석과 자작나무』, 『숲과 문화』 제31호, 숲과문화연구회, 2022, 43-45쪽.
소래섭, 『백석의 맛』, 프로네시스, 2009.
소재학, 『음양오행의 원리 이해』, 도서출판가람, 2009.
심귀득, 『주역의 생명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이승원, 『백석 시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시학연구』 제34호, 한국시학회, 2012, 99-132쪽.

-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2004.
- 최남선, 『육당최남선전집 2·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
편찬위원회, 현암사, 1973.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3·9·19권,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1.
- 양계초·풍우란 외,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은남근, 이동철 역, 『오행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sm of Yin-Yang and Five-elements and the White Image in Baek Suk's Poems

Kim, Ji-Yeon*

Baek Suk described the life of the Korean public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e aesthetically improved the value of the Korean language and also had an insight of the meaning of existence and transcendence through his poems. I judged that Baek Suk embodies his inner world, moreover the Korean public's life and cultures through white image and that is why I decided to focus on color symbolism, especially white image of his poem in this study through Yin-Yang and Five-elements.

Yin-Yang and Five-elements symbolizes one viewpoint of the Korean collective unconscious in Korean literature's history. I created a common system of Yin-Yang and Five-elements in this study to understand Baek Suk's poems. Through the system, I explored the origin of imagination and symbolism in white image in his poems.

The symbolism of Yin-Yang and Five-elements and white image in Baek Suk's poems are interpreted as 'The poem from white friends on dinner table'—Sharing the union of life with innocent friend, 'White birch tree'—The harmony of life on white birch tree where the place is in heart, 'Noodles'—Plain and simple white noodles, the festival of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life that penetrates the Korean public's joys and sorrows, 『Facing the white wall』—The delight of life which is overcoming lonely destiny and flying up to sky as a noble and sacred.

The white image is the origin of inspiration and the motivation causing imagination for him. Baek Suk inspired himself with noble and pure energy through embodying white image in his poem and also transcending lonely destiny to sacred harmony. From a Yin-Yang and Five-elements point of view, I wish this study which explored white image in Baek Suk's poems can extend to convergent theory of culture and art.

Key Words: Baek Suk's poems, white image, the symbolism of Yin-Yang and Five-elements, the union of life, the harmony of life, the festival of life, the delight of life

■ 논문접수 : 2023년 02월 24일

■ 심사완료 : 2023년 04월 18일

■ 게재확정 : 2023년 04월 18일

